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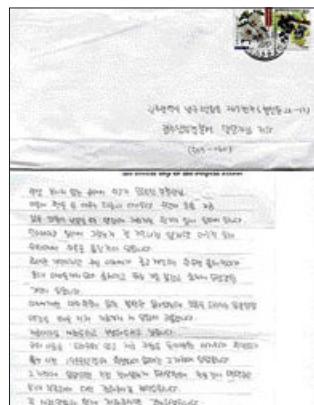
Social Affairs

7 광주일보

제17616호 2006년 12월 1일 금요일

20년만에 날아온 사과 편지

“어릴때 쥐포 훔쳐 먹었는데
슈퍼 아저씨 어디 있나요?”



는 사람의 이름도, 주소도 없었다. 편지지 사이엔 1만 원권 10장이 빼곡히 끼워져 있었다.

발신인은 지난 1988년에 광주시 남구 백운동 사거리 인근에 살았는데, 동네 슈퍼마켓 주인 아저씨가 졸고 있을 때 몰래 쥐포를 훔쳐 먹고 했다고 고백한다.

상호는 ‘우리 슈퍼’였다. 주인 아저씨는 다리 한쪽이不了 불편한 몸이었다.

발신인은 “쥐포를 훔친 뒤, 뛰는 가슴을 불잡고 숨차게 도망갔던 기억이 있다”며 “도움을 드리지는 못 할망정 친구들끼리 동원해 도둑질로 폐를 끼쳐 지금 까지 괴롭다”고 말했다. 발신인은 그러나 ‘슈퍼 아저씨’를 찾을 수가 없어 경찰에 돈을 보낸다고 했다. 지난 1995년 백운 고가도로 연장을 위해 주변 도로가 확장되면서 슈퍼마켓이 철거됐기 때문이다.

편지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직접 찾아뵙는 게 도리일 텐데 찾을 길이 막막하고 용기가 부족하여 대신 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끝을 맺었다.

경찰 관계자는 “발신인은 18~20여년 전에 동네 수퍼에서 쥐포를 훔쳤을 것이고, 글씨체가 예쁜 것으로 봐서 서른 살은 넘긴 여성일 것 같다”며 “우리 슈퍼 주인 아저씨나 그 가족은 꼭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락처 (062) 676-2105.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현재 “노래방” 술 판매·반입 금지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지난달 30일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반입을 금지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32조7호가 위헌이라며 노래방 업주 2명이 낸 헌법소원을 기각하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관련 조항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가능성은 막고 건전한 생활공간으로 노래연습장을 육성하려는 것으로 민족 청구인들의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옛 전남도청 앞 ‘사랑의 체감 온도탑’ 제막

이웃 사랑의 실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사랑의 체감 온도탑’이 설치됐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건국)는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분수대 앞에서 ‘사랑의 체감 온도탑’ 제막식을 갖고 모금활동에 나섰다. 다음해 1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의 주제는 ‘나누면 행복+행복’으로 목표 모금액은 13억원이다. 지난해에는 목표금액(12억원)보다 많은 15억2천만원의 성금이 걸렸다.

‘사랑의 체감 온도탑’은 목표 금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온도계가 1도씩 올라가며, 목표금액을 체우면 100도가 된다.

/위직령기자 jrwi@kwangju.co.kr

광주·전남 대학 맞춤 취업교육

모의면접·취업캠프·논술특강 등

광주·전남 주요 대학들이 본격적인 취업철을 맞아 학생 취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취업 지원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대는 학생들을 기업에 추천하면서 해당 학생의 학생활동기록부를 성적 증명서처럼 발급해주고 있다. 학생활동기록부는 일종의 공인 보증서로 해당 학생의 사회봉사활동, 취업능력증진 프로그램이나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 대학지원 프로그램 참여 사항, 자격증 내용 등이 담겨있다.

전남대는 또 대기업인 LG이노텍과 협정을 체결해 ‘맞춤식 주문형 석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양측은 우선 4학년 학생 중 대학원 졸업 후 LG이노텍에 취업할 의사 있는 학생을 연 20명 가량 선발한다. LG이노텍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형태로 학비를 지원해주고 대학은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가르친다. 석사 학위를 받은 학생은 자동으로 LG이노텍에 취업된다.

조선대는 취업 준비생의 면접 대비를 위해 오는 12일 광주은행과 앰코리아 테크놀로지 인사부장을 면접관으로 초청, 실전 모의면접을 실시한다. 또 2월 취업에 성공한 졸업자들이 강사로 나서 취업 실전 경험담을 소개한다.

조선대는 또 오는 12월 27일부터 29일 까지 신안군 청소년수련관에서 2박3일

동안 ‘엘리트 취업캠프’를 운영한다. 오는 14일까지 학점·외국어능력·자격증 심사 등을 통해 캠프에 참가할 4학년 재학생 50명을 선발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실습 및 경영, 진로비전 및 취업전략 수립 등을 교육한다.

조선대는 이와 함께 최근 공기업을 중심으로 입사 시험 과목으로 논술을 채택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이달 말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30분 본관 311 강의실에서 ‘취업 준비생 위한 논술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평론가 장일구(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초빙객원교수)씨가 강사로 나서 논술의 유형 및 대응 방안, 논제 분석 논술 전략, 실전 논술문 쓰기, 논지 표현 연습, 자기소개서 특강, 분야별 모의고사 등 실전 연습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대는 대학에서 추천한 학생을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 대해 최고 6개월 동안 인턴 급여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또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운영비와 연구·개발비로 최대 5천만원까지 주고 전문 컨설팅과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광주대는 창업지원 자금으로 이미 25억원을 조성했으며 현재 5명이 각각 착수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지원받아 학교 내 창업보육센터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

/황태종기자 hwangtae@

“적법절차 없는 화순군 폐기물시설 무효”

郡, 대법원 상고키로

화순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행정행위로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현재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는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됐으며, 화순군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최완주)는 지난달 30일 화순군 한천면 주민 32명이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승인 처분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전남도와 화순군의 설치승인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을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됐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폐기물 처리시설은 입지선정위원회에 전문가 4인 중 주민 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2인의 참여는 필요불가결한 요소인데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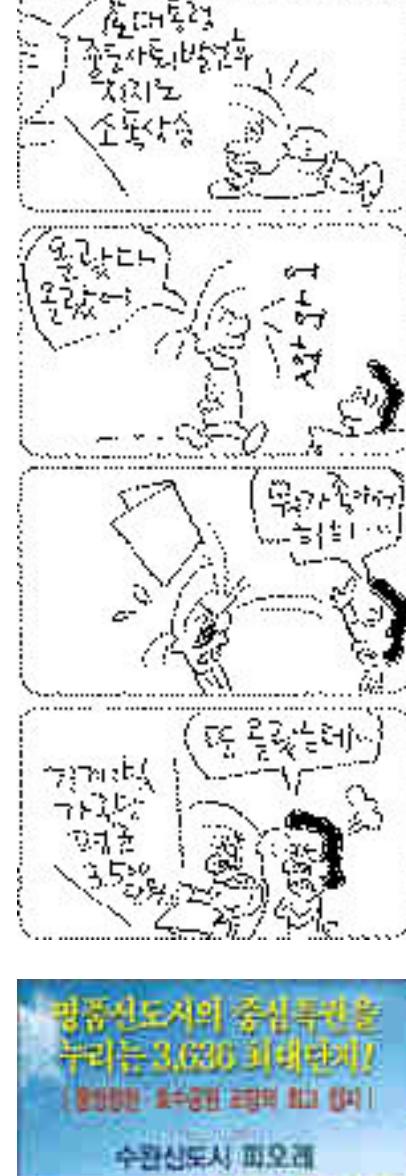
주민들은 1심 재판에서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로 둘째 민족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패소했었다.

화순군은 지난 2004년 200억원을 들여 한천면 가암리 일대에 연간 1만4천 805t 규모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착공, 내년 6월 완공 예정이었다.

/최권기자 cki@kwangju.co.kr

나우침

〈6990〉 김종득



평점서도시의 중심특관을
누리는 3,630 회대다자!

(평점서도시 평점서도시 평점서도시)

수원신도시 평점서도시

수원